

2018년 안동권씨 대종회 제44차 정기총회 개최



2018년 안동권씨대종회(회장 권해욱) 정기총회가 5월 30일 11시 서울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2층 아이비볼룸에서 개최되었다.

고문 및 회장단, 지역총회장, 파총회장, 이사, 종무위원 등 족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대종회 권오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시조 태사공에 대한 명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대종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권웅열 고문에게 공로패를, 시조님 춘추향사는 물론 한국 제례문화 전통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권정창 제례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으뜸 부녀회로 명성이 자자하고 예의법절을 진작시킨 부산부녀회에 공로패를 각각 수여하였다.

권웅열고문이 기탁한 안동권씨 대종회 장학금 10000만원은 아주대학교 권민정양 등 1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권해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존경하는 고문님들과 족친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쁜 일정 중에서도 경향각지에서 참석하신 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표창과 장학금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럼 1년간 대종회를 운영한 모든일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여러 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회장으로 선출된 후 5월 26일 인수 할 당시 현금시재가 약 5천3백만원, 부채가 약 3억 9천 여만원, 은행 대출금 2억원, 회관 임대료 보증금 1억 4천 5백만원, 정도 토지매각 부분양도세 약 4천 5백만원 가량이 미납되어 도합 3억 9천여만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채는 손을 댄데도 현금 시재 111,000백원이 시재로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인건비, 상여금도 없애고 절약하고 개선하여 정보 직역으로 광고수입을 확대하고 해서 6천 여만원이 흑자가 된 셈이지요. 그래서 5천만원은 은행에 적립해 두었습니다. 저의 목표가 3년 임기 내에 건물 보증금 1억 5천만원 정도는 꼭 적립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특히 모든 족친님의 민원과 건의에 따라 두 분의 감사가 바쁘신 결과로 고문단과 상임위원 연석회의에 보고하여 처리의견을 토의한 바를 정보에 기재한 것을 문제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면 남중공단소 이전 시 권영환 추진위원장이 사비도 많이 내고 모금한 액수가 총 3억 9천 여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1억 9천 9천 3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의 행방을 내용증명으로 확인하도록 결의를 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답변서가 권영환 추진위원장



이 1억 9천 3백만원을 안동 대종회 권오의 국장에게 일임하였다는 답변이 와서 그 사용명세서와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당시 안동의 권순갑 부총장에게 확인하라는 등 미완의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회관 문제에 대한 감사결과와 신정동 회관, 용두동 회관, 김포 담 매매 등 3건의 양도세, 취득세 등 공과금이 약 8억 천 만원 이상이 지출되었고 국가 세금 용두동 회관을 같은 금액 25억원에 양도,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시세 평가차이에 7억원 이상이 나서 결국 약 15억원이 날라갔으니 대종회 자산이 반토막이 되었다는 소문은 허위 소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고 판단되고 현재도 신정동 건물은 40억 이상이고 용두동 건물은 30억 이하입니다.

넷째, 특히 제가 공약한 부분 중 첫째가 회관 문제인데 이것은 족친들의 모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1,2십억도 아니고 100억대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 제가 욕

을 먹더라도 독지자의 의중만 기대할 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종보를 직영해서 전국 지역총회 지사, 지국을 설치하여 널리 보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적할 수 있게끔 년간 3만원씩 유료화해서 지국이 있는 지역은 1만원은 지국 료, 2만원은 본부로 올려보내는 제도로 개선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종보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고 본부에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는 종보는 하반기부터 지로 용지로 동봉 할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주산성 기념행사를 정 부행사로 격상하는 문제인데 각 지역 총친회를 통하여 100만 족친의 서명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인물로써 바라는 이순신, 육지는 권율장군인데 전공군은 행주대첩, 이치대첩, 3대첩 중 2개의 대첩인데 너무나 격차가 크고 예산도 이순신장군이 1억이고 권율장군은 1천여만원으로 10분의 1 정도입니다. 권문의 중대한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서명작업을 완료해서 연말까지 청와대 대통령에게 건의 할 예정입니다.

일곱째, 안동에 시조님과 선조님들에게 송조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자손만대에 길이길이 보존 할 정신적인 문화관을 만들어 유물, 유품, 문헌 등을 비치하고 후학 계도를 위하여 보학 강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계획은 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6.13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활발히 진행 될 것이며 자체예산은 대종회 모금을 통하여 부담하고 지자체 예산은 안동시장과 김광림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족친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능동장학회는 우리 정관에는 회장이 누가 되던 승계하여 대종회가 관리,운영한다고 되어있고 역대 회장들이 그렇게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권정달 전 총재는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사직을 고수하고 있고 모든 장학회 일건 서류도 찾아

대종회 발전에 기여하신 분

공로패 顧問 權雄烈
귀 족친께서는 안동권씨 중앙총친회 창립 시부터 익명 또는 실명으로 안동권문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특히 후학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는 애족정신이 숭고하므로 그 뜻을 기리고자 100만 족친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공로패 祭禮委員長 權正昌
귀 족친께서는 제례위원장으로서 시조 태사공의 춘추향사는 물론 안동권문의 한국 고유 제례문화 전통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100만 족친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공로패 安東權氏 釜山婦女會
귀 단체는 평소 전국 으뜸 부녀회로 명성이 자자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조님 춘추향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송조애족 정신을 드높이고, 정갈한 한복차림과 예의법절로 반가의 전통 기품을 진작시켜 100만 족친의 귀감이 되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찾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대종회에서 매년 정기총회에서 지급되던 장학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권웅열 고문님이 1천만원을 기증하여 오늘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종회 공약사항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면서 더 상세한 것은 기타 토의시간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는 100만족친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모든 안건을 원만히 만장일치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오운 사무총장은 2017년도 경과보고를 했으며 권혁창 감사는 감사보고를 했다. 권영규 총무부장이 보고한 2017년도 결산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권오운 사무총장은 개정 전 정관과 개정 후 정관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제①항에 대하여 권중덕 파총회장이 종무위원회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무위원을 추가하기로 하고 정관 개정을 일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어서 폐회 선언으로 정기총회를 마쳤다.

6·13 전국지자체선거, 권문의 주요 입후보자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권오을 바른미래당	 안동시장 권기창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권영세 무소속	 여수시장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권혁중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권종인 바른미래당
 의왕시장 권오규 자유한국당	 문경시장 권철경 무소속	 남구청장 권태형 대구광역시 무소속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권영진 자유한국당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권영호 자유한국당	 공익광고	 권오영 울산광역시 교육감

권문의 자랑스러운 장학생

 권민정 아주대학교	 권민재 대림대학교	 권하형 호남대학교	 권도연 서울여자대학교	 권지은 경성대학교
 권혁성 한양대학교	 권성호 세명대학교	 권예지 서울교육대학교	 권도완 캐나다 cornerstone	 권정민 안산대학교

안동권씨 대종회 제44차 정기총회

♣ 2018년 5월 30일 제44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족친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100만 족친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합니다. 기필코

안동권씨 대종회